



▶ 인도 과일가게에서 만난 어린이

제공: WMM

풍성한 의의 열매를 더하시리라

길쭉길쭉 노란 바나나, 동글동글 망고, 탐스러운 체리, 붉게 빛나는 석류가 과일가게에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다. 그 사이에서 행복한 미소를 띤 소년의 손에 들린 피리에서는 맑고 고운 선율이 연주될 것만 같다.

바람과 물과 빛과 공기가 어우러진 하나님의 심포니에 맞춰 저 많은 열매들은 뜨거운 햇살 아래 저마다의 깊은 맛을 품고 익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코를 찌르는 달콤한 과일향기는 한여름 뜨거웠던 폭양의 흔적들을 기억하게 한다. 그 폭양을 견딘 열매 속엔 보이지 않지만, 풍파와 위협을 이겨낸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긴다.

주님만을 따른다며 살아왔던 길이지만 나의 유익만을 위해 애쓰며 전전긍긍하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던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던

가. 그러나 그때마다 신실하게 붙들어주신 주님의 손길로 인해 어느새 인생 나무에 열린 풍성한 열매는 열방을 위한 양식이 된다. [GNPNEWS]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고린도후서 9:10)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中, 기독교의 중국화 위한 성경 개작 추진

중국 정부, ‘지하교회 폐쇄... 국영 교회 가입하라’

중국 기독교에 사회주의 사상을 배양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경 개작’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중국 기독교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 Aid) 설립자 밥 푸 목사는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 정부는 기독교를 중국화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올해 3월 확정 이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국은 기독교에 사회주의 핵심사상을 심으려 하고 있어 구약 성경을 재번역하고 신약성경에 주석을 다시 쓰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경은 중국의 유교와 사회주의 윤리를 반영한 중국화 된 성경이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 종교사무국의 감독 하에 모든 성과 지방 자치단체의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중국교회협의회가 이 계획에 협조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 공직자들은 지방에 있는 2만여 지하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국영 교회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국영 교회로 허가하는 기준은 교회가 당국이 내리는 명령과 제시하는 길을 공적으로 맹세하고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통과한 많은 가톨릭교회 성벽과 문 앞에는 ‘정부의 말을 듣고 정부의 길을 따라가라’는 구호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GNPNEWS]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여호수아 24:15b)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요한계시록 14:12)

기도 | 중국 내 종교활동 규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철거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어도 중국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와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은혜를 중국에 허락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67)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져다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화목한 가족과 소박한 꿈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당신. 야망으로 얼룩진 인생들이 당신과 같은 삶을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당신의 삶은 과욕을 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바람직한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당신은 물질보다 관계에, 미래보다 현실에, 불평보다 만족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당신에게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평지풍파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당신의 온화한 얼굴이 조금 경직되는 충격을 주기 원합니다. 당신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칭찬해 주는 삶이었다”라고. 그들 ‘모두’는 당신의 삶을 평가할 자격도, 책임질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와 그것을 의지하는 당신의 생각은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평가가 유효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바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당신의 주인이시며, 당신과 교제를 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당신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평가만이 유효합니다.

당신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입니다. 둘째, 셋째 단추를 계속 잘못 끼우면서도 여전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를 지옥에 도착한 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당신이 받아야 할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게 하시고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현실의 만족에서 끝내시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의 소망으로 영원한 행복을 지금부터 누리도록 당신의



일러스트=김경선

삶을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GNPNEWS]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해 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
 정부와 일부 언론의 우려스러운 반기독 경서 2면

기획 |
 “기도를 시작하면서 24시간 교회 문을 열게 됐습니다” 3면

인터뷰 | 김미숙 선교사
 “내가 소망이 없는 자임을 깨닫자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의 우려스러운 반기독교 정서

기독교를 혐오집단, 가짜뉴스 공장으로 몰아가
위기의 때, 한국교회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야



▶ 지난 10월 4일 청와대 앞 대규모 집회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고 종교를 박해하는 정부와 언론의 실태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하는 길원평 교수(사진= 현승혁)

현 정부와 일부 언론의 반기독교 정서가 우려스럽다. 지난 10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가 유튜브, SNS 등에서 창궐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한겨레신문을 비롯 일부 언론들이 기독교가 가짜뉴스의 뿌리이며 혐오범죄의 온상이라는 시각으로 기독교를 정면공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연론회(이하 한교연)는 정부와 일부 언론, 시민단체, 정당들이 연합된 상태로 기독교를 에워싸고 있으며, 이 같은 시도는 국가 사회적으로 불행한 길이 될 수 있다고 지난 5일 논평문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한겨레의 기획기사 중 약 70%는 선교단체인 에스더기도운동(이하 에스더) 등 기독교에 대

한 것들로, 이는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에스더를 가짜뉴스 공장으로 표현, 국민들이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에 대해 크게 부정적으로 부각시키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4일에는 한국일보가 '헌금-예배 강요, 엇나간 복지시설'이란 제목으로 기독교계의 복지시설의 종교 행위에 대한 비판 기사를, 같은 날 경향신문은 '혐오범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기독교인 축구해설자 이영표가 믿음으로 고백한 '아내 분만시 무통주사 거부'를 유아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며 기독교인들의 신앙 활동에 대해 혐오범죄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가짜뉴스 공장으로 지목된 에스더는 "동성애 관련 에이즈 최대 유통경로는 남성 항문 성관계라는 의학적 사실을 정부에서도 인정했는데 이를 가짜뉴스라고 하는 한겨레의 보도는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5일 서울서부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인터넷 언론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민변 출신의 법무부 황희석 인권국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과정에서 '기독교는 혐오집단이며, 기독교와 타협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기독교계의 반대여론과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기도 했다. 또한 이런 뉴스를 국내 주류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아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도 한국 언론이 반기독교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현실과 관련, 한국 기독교계가 이 싸움의 본질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겸손하게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의견도 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난은 기독교계의 세속화와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결과로 당연한 현상이며,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아 진정한 십자가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거듭나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GNPNEWS]

중아시아, 교회 박해 갈수록 거세져

이슬람권역으로 여겨지는 중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자국 정부의 반기독교정책으로 예배금지, 체포, 고문 등의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12일 한국순교자의소리(VOM, Voice of the Martyrs Korea)가 전했다.

현속 폴리 한국VOM 대표는 "중아시아 기독교인들은 버스나 기차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말한다는 이유로 체포되기도 한다"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교회 등록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법으로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경찰에 급습을 당해 체포당하고, 때 맞고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VOM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에서 지난 8월 비밀경찰은 기독교 문서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독교인 열명을 체포, 개인당 한화로 11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타지키스탄 국민 평균임금의 6

개월 치 월급보다 많은 액수다.

카자흐스탄은 2017년에 종교 집회를 열거나 기독교 문서 배포 및 기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263명에 달했다. 카자흐스탄 행정법 9장 489조는 "등록되지 않거나, 중단되었거나, 금지된 종교 단체와 사회 조직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재판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조항을 이용해 2018년 상반기 여섯 달 동안 기독교인들을 80차례 기소했다.

카자흐스탄의 키질로르다(Kyzylorda)지역에서는 한 성년 부부가 가정교회 목사를 찾아와 부모의 허락 없이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교회를 수색하고 촬영하는 한편 모든 성도에게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쓰게 했다. 경찰은 억지로 가정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혹은 어떤



▶ 불법 마약 밀매꾼에서 성경을 읽고 변화된 후, 성경과 전도자료를 성도들에게 물려주는 빅토르형제(출처: opendoorusa 캡처)

종교 서적을 읽은 적이 있는지 교인들 각 사람에게 물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이 납치되어 무슬림과 결혼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교회가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정해놓았으면서도 1999년부터 교회 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기독교인의 전화를 도청하는가 하면 기독교인의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교회 예배를 감시하고 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0.5 ~ 10.12)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동성결혼 지지 케이크' 거부 英 빵집 주인 대법원 승소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글이 장식된 케이크의 제작을 거부했다가 벌금을 받은 영국 북아일랜드의 한 빵집 주인이 2015년 1심과 항소심을 뒤집고 대법원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로 최종 승소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다.

하나님, 승리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영국에서 한 사람의 십자가 생명으로 많은 영국 국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풍성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영국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이 나부끼게 되는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도네시아 당국 "외국 구호단체, 지진 피해 현장 떠나라"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가 덮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구호단체 관계자들에게 당국이 즉각 철수를 지시했다고 트리뷴 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외국인의 독자적 구호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확정했다.

주여, 많은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인도네시아 땅에 이슬람 국가로서 외국 구호단체를 통해 들어오게 될 복음을 두려워하며 그 손길을 거절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완전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초등생 딸, 학교의 트랜스젠더 정책 후 성추행 당해"

미국의 한 학부모가 학교의 트랜스젠더 정책으로 자신의 초등학생 딸이 학교 화장실에서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고통을 받았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디케이터 시의 이 학교는 자신을 여성으로 여기는 남학생들도 여자 화장실, 라커룸, 학교 구내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창조질서를 거슬러 만들어진 법과 질서가 얼마나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세상 가치를 허물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미국 땅으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공급과잉에 가격 내려간 동남아 마약, 젊은이들 '유혹'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의 산악지대에서 저가 합성 마약인 메스암 페타민류 생산이 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최근 전했다. 이런 합성 마약 생산이 '공급 과잉'이라 불릴 만큼 활성화하면서 가격까지 내려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나님, 러시아에 이어 동남아 지역에서도 저가 마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는 사탄의 악한 역사를 더욱 밝히 드러내 주시고,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8년 10월 22일 ~ 11월 3일

- 10월 22일~10월 27일** ▶경기 성남 / 새마음교회(조**)010-3888-6800, ▶경기 부천 / 부천산동교회 (박**)010-3018-5519, 10.22(07시)-26(23시) ▶강원 강릉 / 은강교회(박**)010-7439-7020, 10.22-24(10~17시) ▶강원 속초 / 속초동명교회(최**)010-8373-1273, 10.22, 24-27(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0.22-23, 25-27(20~23시) ▶전남 신안 / 암태중교회(강**)010-5186-0091, 10.23(10~12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9218-6023, 10.25(10~12시)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윤**)010-8482-8651, 10.26(16시)-27(16시) ▶경기 부천 / 처음사랑교회(조**)010-2744-0820, 10.26(19시)-27(19시) ▶L국 / L국 기쁜교회(김**)856-20-5424-5705

- 10월 29일~11월 3일**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손**)010-3913-2677, 10.29-31(0-24시) ▶부산 금정 / 모리아선교회(김**)010-6382-1442, 10.29-~11.3(08-23시) ▶서울 시흥 / 예향교회(박**)010-4004-4326, 10.29-11.2(14-19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10.30(12-24시) ▶대전 서구 / 반석중앙교회(임**)010-2276-8221, 11.2(19-21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11.2(20-24시) ▶전남 광주 / 삼이예배인교회(전**)010-4501-0059, 11.2(20시)-11.3(20시) ▶K국 / K국 엘도스공동체(김**), 11.3(06-12시)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김**)010-7770-9191, 11.3(14-18시) ▶경기 안산 / 안산 안도교회(김**)010-7728-7373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지상중계 | 복음학교컨퍼런스 - 시드니중앙장로교회 편(1)

“기도를 시작하면서 24시간 교회 문을 열게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창세 이후 교회가 위기에 놓이지 않은 적은 없다. 위기의 때에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복음이다. 순회선교단 주관으로 지난 7월에 열린 복음학교 컨퍼런스에서 복음의 진리를 부여잡은 다양한 교회 사례들이 소개됐다. 총체적 복음의 진리를 목회 현장에 집중한 이후 일어난 교회의 변화를 들어본다. <편집자>



▶ 오성광 목사

올해 34년째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서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2004년 1월 시드니중앙장로교회에 부임해 지금 15년째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보내주신 이민교회의 사명이, 온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교회로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부임할 때, 온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명을 가슴속에 새기며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변화들을 시도했고, 또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들에 힘써왔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열방을 섬기는 가운데 2009년에 김용의 선교사님을 주강사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만지고 도전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종류의 구원의 확신용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다른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복음으로 충분한데도 복음을 굳게 붙잡고 승부를 겨루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본질이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이 복음을 온 열방가운데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복음과 기도를 붙잡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복음

집회가 끝난 후에 곧바로 모든 성도님들이 열방을 위해서 한 주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도24·365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느헤미야52기도였습니다. 저희는 직접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순회선교단이나 기도24·365본부와 연결돼 있는 다른 어떤 통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24시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44명의 성도들이 하루에 한 시간씩, 매뉴얼에 따라서 온 열

방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핑계를 대면서 교회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 외에는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사용하지 않았던 교회가 이제는 24시간 기도하는 집으로 문을 열고 열방을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겠다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0년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붙들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1월과 7월, 한국에서 중보기도사역을 훈련받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는 팀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그 해에 두 번은 교회와 함께 느헤미야52기도를 경험할 기회를 또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 번의 느헤미야52기도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특별한 때만 아니라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부여주셨습니다.

2011년은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며 온 성도 앞에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는 열방을 위해 매일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24시간 교회 문을 열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기도운동의 부르심에 순종한 순회선



▶ 24시간 기도를 시작한 이후, 중보기도세미나를 통해 전교인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붙잡게 되었다

교단 열방기도센터(ANPC)에서 진행하는 기도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세계기도정보를 가지고 하루에 한 나라씩 성도님들이 연속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기도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열방기도센터로 세우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기도자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아서 기도시간이 빌 때도 있었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이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보지 못해서 힘을 잃어버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키는지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안식일을 맞아 처음으로 한국의 ANPC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사역을 시작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

니다. 아내와 함께 방문해 기도하면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도24·365본부를 방문, 많은 기도자들을 일으켜서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위해 연속으로 기도하도록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기도 네트워크가 한 교회나 한 단체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선교단체와 모든 성도들에게로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교회가 24시간 기도하는 교회로 문을 연 지 2년이 되는 해에, ANPC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의 연합체인 ‘ANPC 파트너십’ 소속 교회와 기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열고 구체적인 기도 사역을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이들 단체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GNPNEWS]

오성광 목사
(시드니중앙장로교회)

페이스북 대체할 기독교 가치 중시하는 소셜미디어와 검색사이트 개발된다

美 전문가, 크라우드펀딩 통해 usa.life, 1776free.com 개발



▶ 미국의 새로운 소셜네트워크가 될 USA.Life(출처: usa.life 캡처)

페이스북, 트위터 및 구글을 대체하는 소셜미디어 및 검색 엔진이 개발된다.

미국 실리콘 벨리의 인터넷 전문가 스티븐 앤드류는 페이스북이 기독교적이며 보수적 가치의 발언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소셜미디어와 검색엔진을 만들겠다고 최근 밝혔다. 앤드류는 이를 위해 온라인으로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해, 10월 초 현재 21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앤드류는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페이스북이 가짜뉴스 제한정책을 시행, 기독교적, 보수적 발언에 대해 제한을 가한다고 말했다. 46만 명의 페이스북 팔로워를 보유한 그의 게시물에는 매일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근했으나, 이같은

페이스북의 정책으로 그의 게시물에 대한 접근 범위가 98%까지 줄어들었다. 그 후 앤드류는 8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독교 단체와 보수 단체들의 검색을 의도적으로 배제

최근 뉴스와 의회 청문회를 통해 인터넷 대기업들이 기독교 단체와 보수 단체들의 검색결과를 검열하고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의 게시물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거나 노출을 줄이는 새도 배닝을 자행하고 정치인, 글로벌 기업

및 외국 정부에 개인사용자 자료를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앤드류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와 사업 기술을 사용하여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사이트 주소는 USA.Life.

앤드류는 “우리는 인터넷 거대 기업들이 어떻게 개인 정보를 정치인, 대기업들, 심지어 외국에까지 팔고 있는지 훨씬 더 잘 알게 되었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는 개설했을 수 없다. 우리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친구, 가족, 기업 및 좋아하는 그룹과의 연결을 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

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1776Free.com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기독교적, 보수적 대의명분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조장하기 위해 왜곡된 세계주의적이고 급진적인 편견 대신, 이 사이트는 국가를 통합하는 동시에 미국의 가치를 증진하는 ‘친미국적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이다.

그는 “이 두 사이트는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가 제한하고 있는 기독교 뉴스의 공유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NPNEWS]

번역=복음기도신문 국제팀

기획 | 창조 이야기(4)

질서정연한 세상,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만약 빅뱅이론의 주장(빅뱅으로 우주가 배열이 되었고, 진화가 이뤄져 더 나은 생물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물질은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빅뱅이론의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다. 이에 대해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은 “나는 빅뱅이론에 병약한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고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열역학 제 2법칙에 의하면 모든 것들은 무질서를 향해 가고 있다. 어떤 물체든 한동안 그냥 내버려두면 썩거나, 녹거나, 죽거나, 부서진다. 저절로 더 나아지는 것은 없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가르친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히 1:10~11) 아무것도 저절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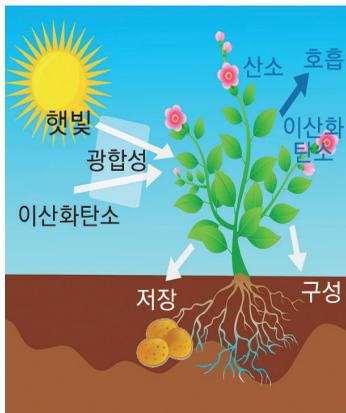
사람은 20살 때는 젊고 육체도 건강하다. 그러나 90세가 되면 허리도 굽고 주름이 가득하고 피부도 거칠어진다. 그리고 3000세가 되면 먼지가 된다. 무엇이든 관리

하지 않는 순간부터 낡아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헤어진다. 이것이 열역학 제 2법칙이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사람은 아마도 40억 년 전에 살았던 박테리아로부터 진화했을 것이다’라고 가르친다. 당신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박테리아인가? 어떤 진화론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에너지를 가하면 열역학 제 2법칙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개방계(열린 체계)이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우리는 그 법칙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요점을 놓치고 있다.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없다

첫째로 우주는 폐쇄계(닫힌 체계)라는 것이고, 둘째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체계가 없는 상태로 에너지를 가하는 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일본이 어느 날 진주만에 많은 에너지를 가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아무것도 질서 있게 해주지 않았다. 그 일로부터 몇 년 후 미국도 일본의 도시에 더 큰 오히려 에너지를 가했다. 그러나 그것도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했다. 에너지를 가하는 것은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는 집 지붕에 에너지를 가한다. 그 에너지는 집을 망가뜨



▶ 나뭇잎의 엽록체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태양에너지를 통해 포도당과 산소로 전환하는 광합성 작용을 한다. 생성된 포도당은 식물과 열매의 영양분이 되고 산소는 공기 중에 배출된다.

린다. 그리고 차의 지붕을 낡게 하고 차량 의자도 망가지게 하며 차 페인트를 벗겨내버린다.

사실상 태양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엽록소다. 식물의 세포 하나가 우주선보다 훨씬 더 복잡함을 아는가? 이처럼 열역학 제 2법칙을 위반하는 ‘진화’는 틀렸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과서는 불가사리 화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한다. ‘34억 년 전의 현대 인류의 초기 조상들의 잔해’ 우리의 조상이 불가사리라 말하는 것이다. 잡지 디스커버리 2004년 11월 판에는 ‘여러분의 조상은 바다 스펀지였습니다’라는 내용을 실고 있다. 또 다른 교과서에는 ‘3000만 년 전에 원숭이들이 진화해서

현대 유인원과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니!

우리는 아이들에게 인류가 동물에 불과하다고 가르쳐왔고, 요즘 많은 아이들은 동물처럼 행동한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바바라 레놀드도 이 사실을 지적한다.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원숭이처럼 행동하나요?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해본 적 있는가.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요즘 아이들은 ‘너는 그냥 동물일 뿐이다’라고 배우고, 아이들이 즐겨듣는 록 음악은 죽음과 파괴와 피로 가득 차 있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을 사랑하느니라”(잠 8:36)

5분 후에 총으로 너를 쏠 수 있어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배우고 있다. 오래전에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공립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다. 자신은 무신론자이고 하나님은 없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질문했다. “애야, 그럼 너는 모든 것의 반은 알고 있니? 아니, 반의 반은 알고 있니? 잠시 네가 모든 것의 반을 안다고 가정해보자. 네가 모르는 그 반쪽 편에 하나님이 존재

할 가능성은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했다. “네가 무신론자라면, 너는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구별하지?” 그 아이는 자신 있게 자신 스스로가 결정한다고 대답했다.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어서 기쁘다. 왜냐하면 나는 5분 후에 너를 총으로 쏠 거니까” 학생이 정색하며 소리쳤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되지. 내가 내 우주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쏘는 것이 괜찮다고 결정했거든!”

이 논리가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고 있는지 보이는가? 사사기에서 말하듯이, 만일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사회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옳고 그름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것은 간단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레 19:28) 누군가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거나,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신경쓰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만일 여러분이 과거에 이렇게 행하였다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안 하면 된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용서해주세요”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인도네시아 지진 이후 열리는 생명의 문

지난 7월과 8월 인도네시아 롬복에 발생한 여러 차례의 강진에 4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준 사건에 이어 9월 28일 중부 술라웨시를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2000여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종자가 50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실제 사망자 수는 현재 집계된 숫자보다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빨루와 동갈라 바닷가 가까운 지역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부서지고 도로가 파손됐습니다. 어떤 지역은 마을 전체가 매몰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아직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기 위해 아우성입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트라우마와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음식과 물, 발전기를 돌릴 기름을 구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여러 명의 현지 한인들이 구호활동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공항이 파괴되어 육로를 통해 하루 길이 넘는 시간을 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부인들의 손길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NGO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인 인도네시아는 잦은 지각판 변동과 100개가 넘는 활화산이 있어서 홍수, 가뭄과 같은 재해 외에도 지진, 쓰나미, 화산 분출과 같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4년 12월에 있었던 아체 지진 쓰나미입니다. 수마트라섬 아체주 서부 아체군 앞바다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은 지진 피해만으로 끝나지 않았고, 높이 30미터의 거대 쓰나미를 일으켜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이 쓰나미로 단 몇 시간 안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난 해안가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가정, 가족 한두 명을 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재난 이후, 정부와 지역의 오랜 분쟁 종식의 전환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2004년 말에 발생한 쓰나미는 과거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인도네시아 정부와 아체 사이의 오랜 분쟁을 종식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아체 땅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강성 무슬림, 아체 종족을 섬기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에 또 한 번의 큰 지진이 아체에 있었습니다. 그 지진은 아체에서도 제일 강성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에 발생하였습니다.



▶ 2016년 아체 지진 당시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구호활동 봉사자의 모습(출처: straitstimes.com 캡처)

평상시 같았으면 접근도 할 수 없었던 지역에 그 지진으로 인해 그 지역을 기독교인들이 섬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쓰나미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술라웨시 지역도 우리 주님은 생명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많은 기독교 NGO들과 사역자들이 들어가 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건이 이 지역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지역 교회들 가운데 복음이 진정한 기쁜소식

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래서 이슬람 단체와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포함해 외부인들의 활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 주님의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엄청난 난민이 나왔고 이라크에서도 많은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GNPNEWS]

본지 통신원= 영광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소망이 없는 자임을 깨닫자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주님의 행복한 신부 김미숙 선교사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전부를 주셨으니,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완전한 순종을 하고 싶어요”라며 주님이 부르신 L국을 향해 나아가는 김미숙 선교사를 만났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한 영혼에게 완전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며 자신도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로 세우시기까지의 믿음의 여정을 소개한다.

-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완전히 세상 속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엄마는 잘살아보려고 여러 사업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빛을 많이 지기도 하면서 매일 굶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군대에서 오빠가 죽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빌고 열심히 굶도 되는 일이 계속 없으니 너무 힘든 날을 보내셨는데 교회에 다니시던 이모가 성탄절에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초청해주셨어요. 그때 엄마가 주님을 만나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렸다면 만나주신 거예요. 제가 이혼하기 3년 전에 엄마가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이혼하고 엄마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 어머니가 먼저 주님을 만나 통로가 되어주셨군요.

“솔직히 교회는 참 싫었는데, 엄마가 밥 안 먹여줄까봐(웃음), 순탄하게 여기서 살고 싶어 교회에 따라갔어요. 교회는 제가 살았던 문화와 너무 달랐어요. 돼지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소주 없이도 고기를 맛있게 먹는 게 신기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교회가 받아주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올 수 있구나. 너무 기뻐요. 하루는 길거리에서 죽은 한 노인을 위해 장례를 치러주시는 목사님을 봤어요. 동그렇게 모여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길거리 노인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눈물이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할 수 있을까? 나도 저런 값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후로도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했어요.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교회에 미쳐서 다녔어요”

무연고자 장례식에서 본 ‘눈물’

- 완전히 교회에 폭 빠지셨군요.

“저에게는 교회가 전부였어요.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교회에 드렸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 꾸미는 것에 마음을 드렸어요. 저는 목사님이 화장실도 안 가고, 목사님은 예수님 동생쯤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이런 분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토씨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적어 설교집을 만들어 다시 목사님께 드렸어요. 목사님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설교를 가시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팔로 메주를 쏜다 해도 믿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잘 살지는 못했지만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저의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 어떤 위기였죠?

“목사님이 어느 날 다가오셨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초신자인 저는 목사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인용하면서 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도 주님은 다윗 편에 계셨다는 등 저를 계속 세뇌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저에게는 목사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었어요. 복음을 알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다른 소망이 없는 제가 목사님의 인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도 한 이유더군요. 또 저도 음란하니까 떠날 수 없었던 것도 이유였겠죠. 참 어리석었죠.”

-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죠?

“어머니 따라 다닌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라 참 난감했어요. 주위에서도 그런 관계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에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어디로 들고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입만 열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진짜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왔고, 교회를 옮겨야 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마침내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옮긴 교회에 가서 매일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달라고요. 그러다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 선교단체의 훈련

을 소개해주셨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서요”

- 훈련은 도움이 되셨나요?

“집사님의 말이 생수처럼 들렸어요. ‘나 거기 꼭 가야겠다, 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꼭 물어볼 말이 있다’ 거기만 가면 살 수가 있을 것 같고, 길이 열릴 것 같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거기서 한 목회자를 만났어요. 어느 날 그분이 밀도 끝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충격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범죄한 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분에게 털어냈어요. 사실은 나도 그런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어 이전의 관계를 다 정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결단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다

- 주님이 하셨네요. 오랜 거짓말에서 벗어나셨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요!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지금 되돌아보면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안 버리셨을까, 그런 꼴을 다 보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나를 안 버리셨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게 너무 은혜인 거죠. 이후 저는 선교단체의 훈련을 받은 후 C국 선교를 준비했어요. 처음 C국에 나가기 한 달 전에 복음학교를 하게 됐어요. 2012년 9월이요. 이미 열방으로 가기로 결정되어있는 상태였으니까 복음을 좀 더 알고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전도에도 필요하겠고요. 복음학교 일주일 동안 주님이 ‘그동안 너 잘했다’는 칭찬과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복음을 한 마디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십자가에 나의 옛 자아가 달린 모습이 환상처럼 보였는데 그것을 ‘나 십자가 통과했구나’라고 여겼어요. 정말 복음을 한 마디도 못 알아듣고 열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2014년 초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선교지로 못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해보려고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선교지에 못 가게 되신 거죠?

“당시 그 나라에서 신분이 불명확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추방했어요. 저를 도와주시던 리더 선교사님들도 추방당하시고 저도 5년 입국정지가 되었죠. 갑자기 이렇게 되니 복음학교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섬김이로 참여해 다시 복음을 들으면서 그제야 내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아프리카의 M국으로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어요. 그 나라의 시장 바닥은 너무 더럽고 파리가 새까맣게 앉아있었어요. 사람들이 진흙 바닥에 앉아있고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있던 C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비교가 됐죠. 그때 주님은 ‘너는 내가 부르면 이곳에 올 수 있겠나?’고 물어보셨어요. 처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곳보다 더 더러운데, 나는 그런 너에게 왔단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더 더러운 나에게 오셨으면, 그렇다면 저도 갈 수 있어요”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이곳보다 더러운 너에게 왔다”

-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군요.

이후에는 어떻게 인도하셨죠?

“중보기도훈련을 마치면서 다른 사람들은 ‘존재가 바뀌고 부패한 심령의 사형선고가 내려지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옛 자아의 사형 집행이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면 그냥 또 복음을 못 알아듣고 끝났겠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찌하든지 저 고백이 뭔지 알고 싶어서 6개월 합숙으로 진행되는 신앙훈련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존재적 죄인’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저 스스로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존재적 죄인’이라는 말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얼마나 진리에 가려져 있고 자아에 갇혀 있었는지 보게 되었어요.”

- 언제 복음을 알아듣게 되셨어요?

“신앙훈련을 마치고 주님이 한 선교단체에서 진행되는 ‘복음과 가정’이라는 훈련으로 불러주셨어요. 훈련을 받으며 복음 스테디를 했는데 ‘마음’에 대한 진리를 공부하면서 제가 얼마나 사탄의 자식인지 비로소 보게 되었어요. 왜 지금까지 살면서 사탄 자식 짓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제야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됐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 당장 지옥에 가야 하는 제 실존을 보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에 사형선고가 내려졌어요. ‘난 죄인이구나. 내겐 아무 소망이 없구나’ 그때부터 주님이 조금씩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제가 얼마나 주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인지 보여주셨어요. 머리로는 진리가 무엇인지 결론이 났지만 삶에서는 복음이 실체가 안 되는 시간을 치열하게 보냈어요. 그 시간 동안 복음이 너무 짐스러웠어요. 교회에 있을 때보다 복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열방으로 도망가고 싶고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 실존을 보시면서 또 한 번 어려운 시간을 겪으셨군요.

“그러던 때 해외에서 열리는 복음학교 섬김이로 참여하게 됐어요. 너무 기뻐요. 매어있고 힘들어하던 때 복음 앞에 불러 주시며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깨달아졌어요. ‘주님의

(6면에 계속)



▶ 주님이 이곳보다 더 더러운 내게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교사의 부르심을 확증하게 된 M국의 쓰레기 더미 근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임마누엘의 복음 (4)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결코 없다고 성경은 약속한다. 구약 성도들이 꿈꾸던 복 역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아담 이후 범죄한 죄인과 하나님 사이는 결코 매울 수 없는 간격이 존재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나의 최선과 노력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저주받은 운명 그 자체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저주받은 운명의 간극에 길을 내주셨다.(요 14:6)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낙담하고 실망하는 나의 옛 사람은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완전히 연합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신비한 연합의 비밀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삶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게 복이라’고 외쳤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상상도 못할 엄청난 복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신자의 바람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비전, 승리됨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다. 그러니 내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우울하다는 말은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실패, 낙담, 우울하다는 말과 같다.

예수님이 실패할 수 있는가? 주님이 실패할 수 없다면 내게도 실패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요일 5:4~5)

구약의 다윗은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다.(시 18:1~2)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다윗조차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과 가까이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기적을 맛보고 있다. 기억하라! 다윗이 부러워할 사람이 지금의 우리이며, 아브라함이 꿈꾸던 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음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자. 이미 듣고 알고 실제 된 복음 앞에 계속 서야 한다. 두려움의 커튼으로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탄의 거짓은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사라진다. 그리



일러스트=노주나

고 우리는 다시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나의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두렵고 우울하고 낙담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끝장났고, 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았다! 주님만이 내 소망이요 능력이시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신다!”

임마누엘의 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고 들려지면 비로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 우리에게 위대한 이 복음이 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골 1:26~29) 그리스도를 믿는

다면 유일하고 완전한 복을 이미 받은 것이다. 이 복음으로 우리 주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자! 마음껏 이 복음을 자랑하자!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되길 소망하자! 이 복음에 자신의 삶을 주저 없이 드리는 세대들이 일어나길 기도하자! 주님 뜻만 분명하다면 반드시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2017년 2월) <끝>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헤브론선교대학교
HEBRON UNIVERSITY FOR MISSIONS

2019 헤브론선교대학교 신입생 모집공고

모집대상

-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 선교적 삶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인정 대상자 (단, 예외상황일 경우 상담 가능)

입학설명회

- 일시: 1차 2018년 11월 2일(금) 오후 2시
2차 2018년 12월 7일(금)
3차 2019년 1월 11일(금)
- 장소: 헤브론선교대학교 교사
- 입학설명회 참가 신청: 이메일 hufm@hanmail.net
전화 010-4031-0700, 010-9649-5347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교부 (입학원서 전형료 7만원)
- 2019년 1월 14일(월)~25일(금) (마감일 우표소인까지)
- * 입학설명회에 참여한 자에 한함.
- 해외 거주자는 별도 문의

입학전형 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접일시: 2019년 1월 28일(월)~30일(수)
- 최종 합격자 발표: 2019년 1월 31일(목)
- 입학식: 2019년 3월 5일(화)

전공선택에 관하여

- 헤브론선교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는 전공을 미리 선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년 영성과정을 마치면서 전공을 선택한다.
- 일부 단과 대학 중 전공별로 예외를 둔다.

학교생활에 관하여

- (1) 헤브론선교대학교는 일주일에 4박5일 학교수업과 3박4일의 현장수업으로 진행한다.
 - 학교수업: 월요일-금요일
 - 월요일 오후 입소 후 저녁식사/금요일 점심식사 이후 파송
 - 현장수업: 금요일-월요일
 - 가정, 교회 등 삶의 모든 현장에서 배운 바 진리를 다양한 형태로 실제 체험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 (2) 매 학기마다 방학을 이용하여 현장 아웃리치를 진행한다.

문의 및 접수처

본부 연락처 (041) 667-1737, 010-4031-0700, 010-9649-5347 이메일: hufm@hanmail.net
주소: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헤브론선교대학교 (31952)

Interview (5면에 이어)

복음의 공동체로 증인된 삶을 살고 싶어요

로 덮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구나’ 주님으로만 기쁜 시간을 보냈어요. 이후 6개월 합숙 신앙 훈련에 섬김이로 참여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지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 마음도 있을 테지만 나의 원함도 섞여있구나. 그래서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나의 마음을 백지로 드리기로 결단했죠. 그리고 주님이 백지 같은 제 마음에 써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 마음에 ‘전부로 드릴 것’을 써주셨어요. 그렇게 주님께 전부로 드렸고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L국으로 불러주셨어요”

- 다시 선교지로 나가시는데 너무 기쁘시겠네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H.M.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이 이루어져서 복음의 공동체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공동체로 일어난 증인된 삶을 살고 싶어요. 물론 치열하게 부딪치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복음이면 가능한 공동체의 삶의 증인이 되면 좋겠어요. 그 나라에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 저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듯, 세워주신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이면 행복한 주님의 신부로 쓰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선교사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 2014년 6개월의 복음훈련과정 중 P국 아웃리치에서 기도하는 모습



“이런 계획이었으면 왜 미국에 있게 하셨나요?”

한국 나이로 16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영어를 배우러 간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나라 문화를 너무 체험해보고 싶었다. 미국에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 1년만 있겠다고 약속하고 간 미국의 삶은 점점 익숙해졌고, 욕심을 부려서라도 미국에 있고 싶었다. 내 것, 내 시간, 내 미래, 내 계획, 내 삶... 내 것을 고집해도 어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직면해야 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기도 했다. 주님을 만났다했지만 모양만 남아있는 명목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힘들 땐 주님을 찾다가도 좀 나아지면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기독교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면서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쏟았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과는 다른 모순된 내 삶이 나를 목마르게 했다. 기독교에 적대적인 아버지께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내 삶

에는 진짜 기쁜 소식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었다. 그때부터 주님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1초도 못 견디고 죄를 짓는 나를 보았다. 거룩해지려고 애를 쓸수록 더 불가능했다. 말로, 생각으로, 몸으로, 내 존재가 죄와 떨어질 수 없었다. 이런 고통이 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괜찮은 척 사는 것이 더 나를 비참하게 했다.

그런 한계 상황 앞에서 주님은 나를 복음 앞으로 초대하셨다. 십자가에서 존재적으로 죄인 된 나를 완전히 죽음으로 넘기시고 아름다운 예수 생명을 주셨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맛보았다.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진짜 의를 은혜로 선물해 주셨다.

“너에게 이 복음을 주려고 부른 거야”

그 이후 한국에서 신앙훈련을 받기 위해 8년간의 유학생활을 마무



일러스트= 이예원

리했다. 미국을 떠나는 날 비행기에서 주님께 물었다. “주님, 솔직히 지금까지의 미국 삶이 조금 아깝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보낼 계획이었다면 많은 돈이나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너 돈과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니?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가장 가치있는 이 복음을 너에게 주고 싶었어. 너에게 이 복음을 주

려고 부른 거야” 이 주님의 음성은 내 평생 기억하고 싶은 말이었다.

훈련을 마친 뒤, 믿음으로 한 발짝 걷게 된 곳은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독교의 교사였다. 교육과 아이들 모두에게 관심이 없었던 난 교육선교사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러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요 15:5)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순종했지만 어려웠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스스로 열매 맺어보려 애쓰기도 좌절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여전히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길 수 없음을 보게 되었다. 주저하는 내게 주님이 다시 약속해 주셨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시 37:5) 기도의 자리와 일상에서 주님과 교체하는 자리를 통해 내 마음을 확정해주셨다.

마음으로 결단했다. 이제 다음세대는 내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 동역자들이다. 현재 나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좋은 자리가 없는 것 같다. 처음 말을 배우는 아기처럼 겸손함과 믿음이 늘 필요하다. 다음세대들이 공부할 때 이런 기도를 종종 한다. “주님, 배우는 이 한 단어, 한 문장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이게 해주세요. 영어 잘하는, 실력 좋은 선교사가 아니라 생명 전하는 자들로 서게 해주세요” 물론 나 또한 쉬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매일 내게 허락하신 것을 열방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것이다. [GNPNEWS]

신단비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북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한국과 미국에 대한 환상 키운다”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전문 선교단체 모퉁이돌선교회에 따르면 최근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는 생각들이 번지면서 당과 보위부에서 북한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주민들은 미국과 한국을 철천지원수로 생각해왔다. 그런데 남북정상 및 미북정상회담 등이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한국이 철천지원수인 것 같지 않다는 말들이 번지는 것을 파악한 북한의 당과 보위부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라고 사상동향을 파악하고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계급적 철학에 따라 미국과 한국에 대해 철저하게 원수로 규정하고 반미, 반한의 적대적 감정을 고취해 주민들을 통제해왔다. 이런 통치구조에서 그 사상이 약화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시장에 대한 감시가 심하다. 시장은 당에서 만든 조직이 아니기에 주민

들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퉁이돌선교회는 외부정보가 유입되고 더욱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져서,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철저히 통제하며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악랄함에 자신이 속고 있었음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정권의 와해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USB 영상, 자유로운 사회 동경

한편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 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처벌에도 한국산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영상물이 USB나 SD카드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은 이를 통해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동경을 키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내부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조선(북한) 사람들은 어떤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좋아한다”며 “요즘 젊은 층에서는 노래하면서 춤추는 예능 프로그램이 특히 인기가 있는데, 명절 때나 노는 장소에서 한국 춤을 추면서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한국 춤은 또 최



▶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HRF)은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USB를 기부받고 있다. '자유를 위한 USB드라이브, 북한 체제의 세뇌 교육에 맞설 힘을 지닌 USB드라이브'라는 타이틀(왼쪽 포스터)로 세계 각국 주요도시에서 USB를 꽂을 수 있는 간판(오른쪽 사진)이 세워져있다. 시민들은 이런 간판과 우편 혹은 현금 기부로 동참하고 있다(출처: flashdrivesforfreedom.org 캡처)

근 늘어나고 있는 학원에서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한다”면서 “다만 학원에서는 한국 춤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아이들도 실체를 알고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영상물은 해외에 흘러들어온 것을 메모리나 유심칩으로 핸드폰에 끼우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집에서는 컴퓨터로나 녹화기로 보기도 한다”며 “외국 영상물들은 중국을 통해서 밀수로 들어오는 것이 태반인데, 들어온 영상물을 컴퓨터로 복사해서 유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입해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검열이나 단속 시 감추기 쉬운 작은 크기의 장치를 통해 누구나 쉽게 영상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때 해외

영상물 저장 장치로 활용됐던 ‘알판’(CD)은 상대적으로 보관이 어렵고 단속에 걸리기도 쉬워 최근에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라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현재 북한은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사진·도서·노래·영화 같은 것을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유포하였거나, 비법(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 또는 보거나, 들었거나, 재현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형법 제183조, 제184조)는 내용으로 자본주의 문화 유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GNPNEWS]



우리의 흔한 실수

믿음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자신의 공로에 대한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존재 기반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기보다 자신의 확신에 충성하기가 훨씬 쉽다. 주님께 충성하려면 우리의 확신은 변해야 한다.

우리의 흔한 실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주님을 높이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교리에만 집중한다면 인간의 완고함만이 드러나게 된다. 주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주장하기 위해 더 독단적으로 변한다. 그러나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고 더욱 주님만을 신뢰하게 된다.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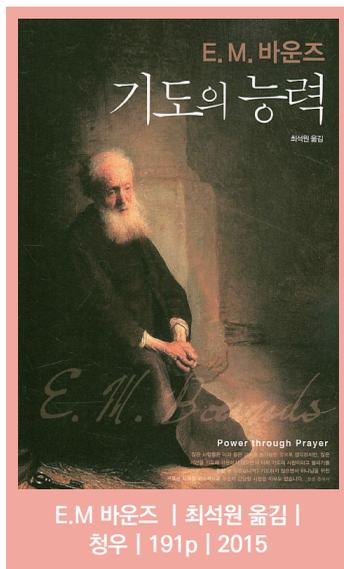
<제자도(2012), 오스왈드 챔버스>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E.M 바운즈 <기도의 능력>

골방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공부방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9)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에베소교회에 전하여 지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했다. 영어 성경(NIV)에서는 ‘I pray(나는 기도한다)’로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밤낮 기도했다.

이 책은 바운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시간씩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간절한 기도 없이는 설교를 수락하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의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바운즈는 단지 몇 차례의 집회만을 수락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매일의 기도로 부르고 계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얼마나 기도에 헌신된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었다.

그의 생전에 첫 번째로 쓴 이 책은 ‘설교자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출판되었다. 그는 “기도 없는 설교는 성도를 죽이는 설교에 불과하다”고 말할 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한 통로로 사랑을 사용하시는데, 기도로 그 사랑을 먼저 통로답게 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대하 16:9) 저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설교의 방해물이 되는 설교자 자신이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아가 왕 노릇하고 있다면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나의 복음’, 즉 바울의 가슴 속에 실체가 되어 자신의 인격이 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설교가 영혼을 살릴 수 있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할렐루야!

기도, 하나님 능력의 통로

둘째,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지만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고하는 일은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 골

방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마음의 공부방이다.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씨를 뿌리고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곳이 된다.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진리가 실체가 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임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히 5:7) 그러므로 영적 해산을 하기까지 골방에서 온 맘과 뜻을 다한 기도를 올리는 설교자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

나는 오래전 캠퍼스에서 사역할 때 설교를 할 기회가 종종 있었다. 설교가 힘이 없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무능력함을 느꼈다. 만족스러운 말씀 준비는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했었고 나에게도 실체가 되지 못한 복음을 온 힘 다해 나누었다. 얼마나 공허했던지 목이 말랐다. 감사하게도 그 이후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

이 되는 위대한 일을 주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셨다.

복음을 만난 이후에도 영혼을 섬기면서 때로는 변화를 목표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의 욕심을 볼 때가 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내 말대로 변하지 않는 아이를 다그치고 답답해한다. 그런데 주님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골방에서 나를 먼저 바꾸시는 것을 경험한다. 변해야 하는 것을 알고서도 변할 수 없는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게 하시고 더욱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통로 된 교회 또한 더욱 기도의 자리로 헌신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나의 복음을 가진 메신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로 일어나게 하시길 기도한다. 마라나타!

[GNPNEWS]

김은영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일방통행식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육아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정신이 없었다. 내 아이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없었다. 이 아이를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어 매일 벽쳤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마찰도 잦아졌다. 반복되는 다툼 속에 남편의 사랑이 의심스러웠다. ‘애초에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 아니야?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나?’

하루는 별것 아닌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금세 심각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그동안 쌓였던 것이 폭발했다. 남편의 변심에 대한 대서사시를 읊으며 떠들어댔다. 실컷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남편이 먼저 사과할거라 믿었다. 이제 자신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겠지. 그런데 남편이 대답 “당신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어?”라고 물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라 당황했다. 여태껏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남편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 무슨 기가 막힌 질문인가 싶었다. 생각해보니 이 질문은 내가 남편에게 늘 하는 이야기의 본질과 같았다. ‘이러이러한 거 보니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마음이 변했어’ 등등 남

편의 말과 행동, 여러 가지 태도를 증거 삼아 코너로 몰고 갔다. 정작 ‘나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을까? 남편 입장에서 내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나는 철석 같이 믿고 있었다. 나의 마음을 남편에게 아주 잘 전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신과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었노라고.

남편의 질문이 주님의 질문으로 들려졌다.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니?” 주님의 물음속에 잠시 시간을 갖고 잠잠히 묵상했다. 처음엔 충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수치와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사랑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에 빠진 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되었다. 순간 통곡이 터져 나왔다. 오로지 내 편에서,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일방통행했던 사랑이었다. 아니 사실 사랑이라는 말을 감히 붙일 수도 없는, 사랑으로 위장된 내 만족과 고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빠져나가 있었으니 남편에 대한, 그리고 아이에 대한, 아니 모든 것에 대한 내 사랑이 온전하고 진실했는지 리가 없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삼상 15:23)

주님이 원하는 사랑법은 순종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순종이었다. 주님이 먼저 순종하십시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그들에게 할 사랑은 순종뿐이었다.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닌 내 아집으로 마음대로 한 사랑이었다면 그게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죄일 뿐임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그 순종을 귀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시는지 하루하루 더 깊이 배우고 알아

가는 중이다. 물론 남편을 대할 때도 이전보다 다르게 내 태도와 마음을 먼저 살피게 됐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라 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순종하기까지 매달리며 살아가게 하신다. 자기 확신에 빠져 제대로 된 소통마저 막아버렸던 자에게 주님은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내 실체를 확인하는 은혜를 주셨다. 앞으로도 더 많이 책망받고 죄 된 실존을 마주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때까지 빛 된 주님 앞에 다 드러나길 소망한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완전하고 온전한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로 서도록 주님 계속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GNPNEWS]

유설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8. 9. 27 ~ 10. 11 (가나다 순)
개인 김경선 김동영 김애심 김유남 김장일 김혜신 노은옥 박성규 박숙자 송일양 안민자 안병윤 안수경 안현숙 이남준 이동희 이란영 이삼연 이준진 이진희 이희순 정혜월 조명숙 조상국 조형광 차정규 최근희 최정미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거자씨선교회 김포전원교회 김화제일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베이커리드헤미 산돌교회 샘물교회 웹시온교회 시흥교회 양덕원김리교회 은혜선일교회 인천주님의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민족기독원 팔복김리교회 험시바교회 WMM서북중보기도학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재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